



복지부 장관, 감염인 방문하여 위로

김근태 장관은 지난 21일 역대 보건복지부장관 최초로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의 에이즈 감염인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며 앞으로 감염인 인권증진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하는 등 에이즈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했다. 김 장관을 만난 감염인은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은 이해한다고 해도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된다."며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토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김장관은 "에이즈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고 하니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기 바란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감염인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감염인의 인권을 강조하였다.

(2004. 12. 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도, 술판매시 콘돔배포 의무화

세계 2위의 에이즈 대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인도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특

단의 대책이 마련됐다. 술을 팔 때마다 콘돔을 공짜로 끼워주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다. 남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주(Andhra Pradesh)는 세계 에이즈의 날이었던 지난 12월 1일부터 모든 술집에서 술을 팔 때마다 병당 콘돔 1개를 끼워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모든 술집에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고 술집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의 에이즈 인구는 510만 명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인데 전문가들은 인도인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해 조만간 남아공을 추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시는 7600만 명의 전체 인구 중 47만 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마하라시트라주(70만 명)에 이어 인도에서 에이즈 인구가 두번째로 많다.

(2004. 12. 9 서울신문)

싱가포르, 혼전 에이즈 검사 검토

싱가포르 정부가 결혼을 앞둔 모든 남녀에 대해 에이즈 검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싱가포르 일간지인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카우 분완 싱가포르 보건장관이 혼전 에이즈 검사 문제를 보건 차원에서 바라보면 법제화에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며 싱가포르 정부가 혼전 에이즈 검사 의무화를 강력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NEWS



인구 420만 명의 싱가포르에서는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모두 257명의 에이즈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에이즈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 12. 6 YIN〉

존슨·야오밍 'AIDS예방' 광고출판

'농구공의 마술사' 제작 존슨과 '반리장성' 야오밍(후스투)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알리기에 나섰다.

아들은 에이즈의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촬영했다. 이 광고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1일(미국시간)부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방영됐다.

존슨은 야오밍과 광고 속에서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만 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에이즈 감염자들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광고는 야오밍과 존슨이 함께 농구하는 것은 물론 껌안거나 식사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에이즈 환자와 일상 생활을 같이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존슨은 LA 레이커스 출신의 슈퍼스타. 그는 91년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에이즈 퇴치와 예방 캠페인에 힘쓰고 있다. (2004. 12. 3 스포츠한국)

중국 남성 동성애자 1.35% 에이즈 감염

중국 남성 동성애자 가운데 무려 1.35%가 에이즈에 감염돼 대책이 시급하다고 선

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남성 동성애자는 5백만에서 1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성 지식이 부족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에이즈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위생당국 관계자는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감염률은 마약 중독 환자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대부분 성행위 특 통해 감염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반인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004. 12. 2 YIN)

에이즈 감염 오인 30대 자살

미국 유행기간에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고만해 오던 30대가 자신의 집 옥상에서 투신,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서구 부민동 김모(68)씨 집 4층 옥상에서 김씨의 아들(36)이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김씨는 7년 전 미국 유학 당시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자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오인해오던 중 음성판정까지 받고도 고병해왔다.

(2004. 12. 2 서울신문)

독일 남성 82% 크기가 맞지 않는 콘돔 사용

독일 남성의 82%가 크기가 맞지 않는 콘돔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독일의 콘돔 전문가 빈첸츠 크라우제씨는 16~65세 남성 2천5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48%가 너무 작

PHOTO